

看 護 教 育

~ Iowa 주에서 열린 ~

<우석간호학교> 김 순 자 역

「최근 Iowa洲 看護協會, 第二支區 主催로 Iowa洲 Marshall town에서 開催된 討論會記事가 우리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같아 여기 옮기기로 했다.

이 討論會에는 看護員을 위시하여 병원행정관, 학생 및 기타 看護事業에 관심을 가진 人士들 約 500名이 참석하였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지고, 토론회를 열게끔 되고 참석하게끔 되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원문의 편집자는 아래와 같이 풀이하고 있다. 즉 “看護教育에 對한 깊은 關心과 나아가서는 看護事業이 當面한 dilemma에 對한 絶실한 관심 때문이다”라고.

이 문제 토론을 이끌어 주신 분은 Iowa市에 있는 Iowa洲立大學校 看護大學 學長이시며 저명한 看護教育者이신 Laura C. Dustan 女史와 New York의 Albany Medical Center 醫務副總長인 Thomas Hale 박사의 夫人인데 Hale박사는 病院 부속 看護學校制度를 제창하는 분이다.

여기 위 두분의 연설문과 연설 후에 있었던 방청객 과외 질의 및 토론의 발제문을 制限된 지면 관계로 一部만 실리겠다.

Laura C. Dastan

女史의 연설문



看護教育은 學究制度이어야 할 것인가?
見習制度이어야 할 것인가?

나는 美國의 저명한 小說家 James Michener가 自身の 小說 속에 추리한 人類 발달의 한 사례를 들어 比喩함으로써 나의 意見を 피력하여 보겠습니다.

위에 말한 事例는 Michener의 最近의 小說 “根源「The Source」”의 92페이지로부터 96페이지까지에 실려 있는데 12,000年前 갈릴리에서 있었던 事例입니다.

즐거리의 要諦는 人類가 主로 경제적인 理由 때문에 洞窟생활에서 벗어나는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여기 주려 보자면.

Ur의 大家族은 넓적하고 시원한 한 등굴을 占領하고 있었고 그들의 主된 양식의 資源은 들뜰에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들꼭식에다가 어찌 다 걸려드는 사냥거리에 全적으로 依存하고 있었읍니다.

아버지는 野生동물을 사냥하고 또한 들뜰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담당하였고 어머니는 꾸준히 쉼없이 들꼭식을 주워 드리는 것이었읍니다.

아버지의 사냥이 成功적이었을 때는 온 가족이 배불리 먹었고 아버지의 사냥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꾸준히 저장 보관한 들꼭식으로 家族이 연명을 했읍니다.

이 小說 속의 어머니는 家族의 호구를 위한 安定된 食糧供給을 위하여 늘 연구사색하고, 외문점을 발견하며 결국은 좀더 나은 方法을 발견해 내는 특징을 가진 女人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리 저리 흩어진 들꼭식을 거두려고 멀리 돌아다니는 대신에 한 場所에 集中적으로 경작하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에게 “돌아다니는 代身에 우리 가족이 보살필 수 있는 한 장소에 꼭식을 잘 가꾸어 놓으면 그 열매를 쉽게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어봤읍니다.

그러나 男便은 아내의 의견을 비웃어 넘기고 꼭식을 경작하는 따위의 보잘것 없는 일을 도아 주지 않았읍니다.

그 어머니는 강인한 忍耐로 비웃음을 부릅쓰고 곡식을 심고 가꾸어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였습니다.

곡식이 자라고 있는 경작원은 동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고로 들짐승들로부터 곡식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으며 이것이 또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最善의 방법은 온 가족이 곡식이 자라고 있는 농토가까이로 이사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男便에게 심히 주저하면서 傳統的인 集團에서 完全히 이탈하는 그 問題를 꺼집어냈습니다.

男便은 이에 對해 방어태세를 갖추며 “동굴을 떠난다면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이냐”고 反問하였으며 아내는 서슴치 않고 “지붕이 있고 벽과 달이 있는 집에서 살지요”라고 답했습니다. 거기에 對해 “男子는 集團과 함께 살면서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사냥이야기를 하여야 된다”고 男便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왜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 생각하는 방법이 가장 옳다고만 믿고 있느냐”고, 흡사 지금까지도 수많은 變化에의 動因들이 現狀에만 절망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者들에게 묻는 傳統的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또한번 강경하게 버티었으나 딸아들이 어머니의 의견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집을 짓기에 이르렀

습니다.

그후 비록 그 아버지는 오랜동안 利用되어 온 생활방법이므로 전통적인 관습적인 옛날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어야 한다고 믿고 그에 대한 강한 집착은 버리지 않았으나 집을 짓고 사는것 그 자체는 不動의 洞窟生活보다 훨씬 많은 利點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 人類라는 한 動物들은 서서히 人間으로 또한 주위환경에 맹종하는 노예로부터 환경자체를 支配하는 主人으로의 변천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傳統的인 現狀고수파와 先見之明을 가진 先進派間的 토론이 있습니다. 현상고수파들은 사회를 휩쓰는 사회적 경제적 힘을 완전히 의면한 채 여러 代를 걸친 그들의 祖上들이 해 나오던 전통적인 方法이 永구히 모든 문제 해결에의 열쇠라고 고집합니다. 그들이 차라리 變化에의 고통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인 동시에 병어리라면 그리 나쁠 것도 없겠으나 變化의 필요성을 變化를 원하는 소리가 집요하고 강력할수록 그들은 낡은 생활(낡은 이념)을 고수하는데 보다 분명하고 명확해지니 말입니다.

各個의 世代는 先代로부터의 遺産과 未來에 對한 비록 회미하나마

한정된 展望을 바탕으로 그 世代固有의 方向을 분명케 명확히 확립해야 할 줄 압니다. 過去에 있어서 看護事業의 형태를 좌우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歷史의 배경이 看護事業의 未來의 형태를 決定하는데 있어서도 重要한 역할을 담당할 것은 定한 理致입니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흐름을 무시하기로 作定한 분들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一時的인 治療効果는 다른 여러 方面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나 실로 人間에게 있어서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간에 적절한 조치 없는 치유는 차디찬 平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간호사업 自體가 人間の 看護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돌본이려니와 특히 人間の 基本的 욕구에 기여한 바에 依하여 看護事業은 人間에의 奉仕의 상층처럼 되었습니다.

이 重要하고 生命力있는 힘을 永存시키기를 원할진대 看護員의 수요 및 공급의 이념을 다루는 우리 모두는 과거에 있어서 看護사업의 형태를 구성한 그 힘을 다시한번 되새겨보고 未來에 있어서 看護사업의 형태를 구성하는데 영향력을 가진 모든 자원을 첫째로 상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過去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 사회적 女性관이 이나라 看護教育의 始發點을 左右하였습니다.

Florence Nightingale 理念에 입각한 독립적이고 自律的인 看護學校가 이땅(美國)에 들어오긴 했으나 경제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자원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人類에게 看護를 베푸는 직업, 특히 그 看護를 베푸는 사람들이 女子이었기에 더구나 더 이 직업인들에게 조금의 우선권도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당시 고등교육제도는 직업인의 양성이나 여성교육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고로 간호사업 발전에는 두견의 장벽이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그당시의 看護學校는 入院환자 看護를 통하여——즉 사망률의 저하등——教育경과의 부산물로써의 看護봉사가 一種의 눈에 띄는 變化를 가져옴을 들어 사회에 시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 초창기의 불완전한 병원을 경영하던 그 분들의 마음속에 불려일으켜지었던 변화의 고동이 들리는 것같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고동치면, 現世에까지 뻗치는 영속력을 가진 그 方案이 생겨난 것입니다. 方案이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즉 「病院부속으로 看護學校를 설치하여 學生들은 看護하면서 看護술을 습득하게 하는 方案이었고 실제로 그들은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배움을 거쳐 돈을 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方案은 모든 사람에게 이로웠습니다.

病院은 돈 한푼 안들이고 看護學校를 설치할 수 있었으며 看護學生들의 노동력을 利用하여 患者看護를 피했었습니다.

한편 大學에 진학치 못한 처지에 놓여 있는 젊은 女性들이 비록 적은 보수이지만 그들에게 中급적으로 自立을 갖다줄 하나의 職業을 얻는 길을 얻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醫師들은 이 制度를 통하여 이 젊은 女性들을 종속적이고 자발적인 最善의 人力으로 양성함으로써 자신들의 事業번영을 最大限으로 누릴 수 있는 金노다지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一般市民들은 自身이나 家族이 病이 났을때 病院에서 거의 돈 안드리고 學生看護員의 看護를 받을 수 있었고 졸업看護員도 가정看護員으로서 下人과 진배없는 임금으로 쉽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故로 이 制度가 社會에 깊이 뿌리를 박게 된데에는 주호의 意아실도 없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各류 各層이 경제적인 惠澤을 입게 되었으며 간호술은 소위 말하는 “見習制度”를 통하여 일하면서 습득했으며 그때 당시에는 이 制度가 하나의 훌륭한 教育制度로써 允稱했던 것입니다.

이 教育制度는 國民의 稅金으로부터 一錢의 支拂도 强要하지 않았으며 또한 子女를 가진 父母들에게는

돈안드리고 딸들의 教育을 시킬 수 있었으며 特別 結婚하여 主婦가 될 젊은 女性의 教育에 學費를 드리는 것이 無價値한 것이었기에 더 한층 그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능이 醫療事業化에 기여한 바 至大하다 하겠는데 좀더 具體的으로 說明하자면 醫師들이 時間이 많이 걸리는 醫療機能을 다른 職種에게 讓渡하고 自身은 純全히 治療에만 精力과 時間을 傾注할 수 있었습니다.

結果적으로 醫師들은 自身들의 事業을 三倍四倍 增大시킬 수 있었고 따라서 그들의 經濟的狀況도 好轉되며 現世에 이르러서는 社會에서 經濟的으로 最優位의 處遇를 받는 職種으로서에 確固한 土窟을 築은 셈이 되겠습니다.

從來에 그다지도 圓活히 運營되던 制度를 왜 지금에 와서는 變革이 不可避하다고 壓力을 넣는가 Hale博士가 命名한 “看護權力層”들이 看護教育은 高等教育制度로 변천되어야 한다고 부르짖는 理由는 무엇인가?

그러한 변천이 不可避한데에는 다음 세가지의 切實한 理由가 있는 것으로 믿읍니다. 첫째는 經濟的인 理由요, 둘째는 보다 많은 知識에의 必要性이요 그 마지막은 學生需給과 關聯된 여러가지 問題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깊은 關聯을 가지며 서로 의존하고 있는 理由들입니다. 便宜上 따로 따로 分離하여 分析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世紀末의 經濟의事情이 그 世代의 看護教育을 左右한 바 있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經濟라는 것은 變化 變動하는 것이어서 過去와 달리 지금은 反對의 現狀이 나타나 모든 職種을 위한 人的資源을 配出하는 教育費(國民의 稅金에서 充當)에서 看護教育도 政府의 支援을 받게 됩니다. 1850年度에 있었던 Masril法令通過以後 끊임 줄모르게 漸次的으로 高等教育機關의 초절이 變遷하고 있음을 봅니다. 本質的으로 우리 社會는 勤勞를 根本으로 하는 社會이며 그런故로 우리의 教育制度 亦是 우리 뒤를 이을 다음 世帶의 일꾼들을 準備하는데 重點을 두는 것을 봅니다. 從前에는 法官과 教會指導者 養成에는 尙重하였던 高等教育機關은 漸次的으로 모든 職種을 위한 教育으로 變遷하여가며 四年制 現大學이나 大學校教育으로 適合치 않은 職種의 教育을 위하여서는 初級大學이나 Community College를 發展시키는 現實이며 子女가 있든 없든 例外없이 우리는 모두 復雜하고 비싼 教育制度樹立을 뒷받침하고 있는 現狀입니다.

看護事業이 하나에 職業으로서 존속하려면 看護事業 從事者의 教育도

國庫에서(國民의 稅金) 教育費의 支出이 되고 있는 高等教育의 責任下에 있어야겠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患者가 날로 늘어 나는 治療費 以外에 看護員의 教育을 爲한 費用까지 負擔한다는 것은 理致에 當치않는 理論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많은 數의 學生을 가르치는데는 見習式 教育방법이 적합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看護업무 수행을 위한 看護員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많은 수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施設이 完備된 高等교육기관을 利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음니까, 그런 이유에서 看護教育을 위한 財政 확대의 必要性和 看護員 수요증대의 必要性이 절박한 이 때에 임하여 선택의 자유도 없이 看護教育은 高等교육기관 안으로 옮겨가야 하겠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事實, 우리의 당면과제는 “우리가 高等교육기관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高等교육기관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줄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看護教育을 적절하게 잘 하려면 財政的 뒷받침이 必要하고 大學經營者들은 充分한 資源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看護教育을 받아들리는데 熱意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길 即 그들의 社會에 必要不可결한 職業人의 教育

에 對한 道義的 社會的 責任感에 呼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看護教育이 大學教育으로 發展해야 한다는 나의 둘째번 論旨는 生理學的 生物學的 行動科學的인 知識을 쌓고 意思소통의 技術에 익숙하며, 看護技術을 超越하여 看護原理및 理論을 터득한 看護員을 輩出し켜야 한다는데 基礎를 두었습니다. 看護術의 方法을 가르치는 것은 比較的 單純하나 看護行爲의 論理를 가르치자면 細心한 指導教育이 必要합니다.

질병으로 呻吟하는 한 人間의 個別的인 慾求를 安全하게 그리고 技術的으로 看護할 수 있도록 하자면 看護行爲者는 무엇을, 왜를 確實히 알도록 教育해야 할 糶로 믿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患者를 看護함에 있어서 사려깊고, 疑問點을 發見할 줄 알고 나아가서는 理致를 터득하는 看護員을 教育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看護教育의 場所를 變更하는데에는 學生募集에 關聯된 問題와 學生들에 學校滞在問題 即 學業을 中斷함이 없이 繼續하는데 對한 諸般問題가 깊은 關聯이 있다는 것을 들고 싶읍니다. 우리 世代는 “大學進學”이라는 思潮를 開發하였고 이에 隨伴하여 우리는 우리 自身들에게 無慈悲하게 高額의 課稅를 부담시킴으로서 여러가지 職種을 爲한 人材를 養成할 수 있는 高等教育

機關을 設置運營하게끔 되었으며 그 結果로 “大學進學”을 社會進出및 經濟的安定的 關門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現存하는 教育機關(大學및 大學校) Campas 以外에서 다음 世代의 일꾼을 기르려는 專門職業은 大學으로 變는 젊은이들에게서 소외당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도 父母들이 子女들의 教育을 爲하여 보내는 이미 設置된 教育機關 안에 편재시켜야 하겠으며 그렇게 하므로써 自身들의 生涯를 값있게 사는 方法을 터득하는 同時에 生活을 爲한 經濟的報酬를 받을 수 있는 職業人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看護事業 爲으로도 얻을 수 있을 것이 分明합니다.

바라건대 내가 Hale박사가 파죽지세로 단숨에 “간호권력층”을 개괄한 데 대하여, 또한 간호교육기회를 개선함으로써 人類의 간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우리들의 노력을 조롱한데 대하여 正面으로 맞서지 않은 것으로 하여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나는 “우리”가 즉 의사, 병원행정관 각분야에서 실무하고 있는 간호원, 초급대학및 정규대학 관리자과 교수진, 소비대중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진분, 그리고 각급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학생이 모든

“우리”가 우리가 갖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면 전전한 간호교육 제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사려깊고 민감하며 지혜있는 간호를 베풀수 있을 것이라 믿읍니

다.

변화의 숨결은 일기 시작했읍니다. Hale 박사에게 묻노니 왜 반드시 당신이 고집하는 그 교육이념이 다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란 말입니까?

Thomas Hale

박사의 연설문



~患者를 看護할 看護員을 원한다~

看護教育和 看護事業 全般에 걸친 모든 난문제에 對한 적절한 해결책 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피력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하자면, 一般市民, 看護員, 醫師, 看護教育者, 病院行政官 등 모든 部類의 사람들에게서 共感을 얻을 수 있는 看護員 수급 對策을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되었다면 그 이상 나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읍니다.

看護教育을 論할 때 가장 혼란을 가져오는 理由는 方法이나 理念에 있어서 좋고 나쁜 것을 比較하는 比較的 쉬운 立場이 아니라 長短點을 서로 엇갈리게 내포하고 있는, 비유하여 鮮하고 짙은 同色을 가려내는 어

려운 立場에 놓여 있으며 한편 정확 한 것은 白紙로 돌아가지 않으면 판단키 힘든 탓이라 하겠읍니다. 看護教育의 두가지 理念이 잘 調和를 이룬다면 모든 問題는 해결을 볼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이 이로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두가지 理念은 어떤 特殊한 部面에 있어서 거의 絶對적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읍니다만 둘중 하나는 반드시 양보해야 할 것으로 믿읍니다. 우리는 흑백을 가리는 것과 같이 쉬운 판단분별을 해야할 입장이 아니라 개입되어 있는 우선권 문제라던가, 부여된 利害關係 동기, 등등의 많은 아주 비슷비슷

한 색깔의 미미한 차이를 발견해 가려내야 할 立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理由 때문에 看護教育이 오는 20年間 절어가야 할 課程에 對하여 점점 멀어져만 가는 意見의 차이를 나는 좀더 넓은 안목으로써 理念的인 接近策을 論해 보겠습니다.

이 두가지의 다른 理念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편측에는 全國의 看護員數에 比하여 적은 部分을 차지한 극소수진 하나 그 권위와 영향력에 있어서는 방대한 힘을 가진 看護教育者들이 있어, 그들의 주장은 看護全體를 病院 테두리에서 完全히 除去하여 大學캠퍼스 안에 두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看護技術을 숙달케 하는 것은 基本看護教育課程속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며 졸업 후에 누구든지 간에 그들을 고용하는 측에서 看護技術을 연마시켜 숙달케 하는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基本看護教育을 위한 教課程 속에는 필수理論과 더불어 眞요한 분량의 임상실습이 내포 병행되어야 하며 看護교육 최선의 方法은 大學캠퍼스에서 보다 病院 테두리 안에서 즉 病院이라는 실제의 환경 안에서 施行하는 것이라 믿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구름에는 병원 행정관 및 大部分의 醫師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美國내 大多數의 看護員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입니다.

첫째로 간호 教育學者들의 論旨를 들어 봅시다. 내가 “看護教育學者”라고 특별한 어휘를 使用한데는 품위를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조금도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病院 부속 看護學校長 등의 看護教育者와, 病院테두리를 벗어난 分들을 區別하는데 그 意圖가 있는데 불과합니다. 내가 看護教育學者라 칭한 分들은 直接으로 患者看護의 責任을 지고 있지 않는 分들로서 學究의 이거나 行政的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分들이며 그들의 판단은 종종 理論에만 치우친 나머지 現實을 떠나 架空의 인 경향이 있습니다. 看護教育學者들은 그들에게 옳다고 느낌이 오는 사태를 주장하기가 일수인데 그들이 그 사태를 眞실로 眞감하고 眞信한다는 事實은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습니다.

그네들은 看護教育和 看護事業을 “향상”시키려고 하며, 看護事業 “水準의 향상”을 도모하여, 看護員의 이미지(영상)를 좀더 윤기있게 꾸미고자 하여 看護教育 안에 프탈된 “見習課程”部門을 폐지하고자 하며, 看護教育課程에서 奉仕面을 完全히 거세하고자 하고 大學캠퍼스 안에서 看護教育外에도 타部門의 教育을 함께 받는 “권위”를 부여하고자 하고 且

입니다. 그네들은 看護의 教育面만 강조하는 나머지 看護教育의 다른 면, 특히 “看護의 技術面”을 무시했습니다.

看護教育學者들은 大學의 學位를 노리는 젊은이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점을 들고 看護教育도 이 思潮를 인식, 작성하여 有利하게 이를 利用하는 것이 옳다고 논술합니다. 또한 진찰 및 治療方法이 現代化되고 복잡화함에 따라 이를 이해로써 뒷받침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看護員이 大學教育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인 事實로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看護員의 需要가 가장 절박한 곳이 各級 看護學校의 教授진에 있으며 教育을 담당할 教授진의 定員이 확보되기 前에는 임상간호원의 수적 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必然的으로 그네들은 大學의 學士과정으로써의 看護教育이 看護教育기관의 教授진의 需要를 充員하는데 있어서 단 하나의 방편임을 들어 쌍수로 환영하여 가능한 모든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그네들이 부르짖는 看護教育目的들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는 동안 많은 數의 看護員은 勿論 看護事業以外的 많은 人士들로부터 깊은 共感を 불러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네들의 主張은 教育者들의 귀엔 大단히 論理的인 것이어서 大學校를 위시하여 大學이나 初級大學의 教授진

이 이들의 논지를 인정한 나머지 看護教育學者들이 바라는 目的을 증진하는데 열성적으로 도움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兩便의 설명을 完全히 알아 케어 보지도 않고 한편의 설명에만 귀를 기울인 市民을 위시하여 심지어는 社會學者들과 心理學者들도 그들이 제시한 看護教育계획에 共感を 表明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계획은 看護教育學者들이 採擇하고 발전시킨 것이니 얼마나 理想的으로 들리겠습니까? 만일 또 다른面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도 그들이 제시한 것에 어느 정도 共감을 가졌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는 불행이도 그 중에는 내가 全的으로 同意할 수 없는 點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쪽 송사만 듣고는 안된다는 것이겠지요. 환자진료를 直接하고 있는 醫師를 위시하여 病院, 療養院, 및 其他 健康관리 시설이 直接的으로 관련된 다른 면이 있다는 事實입니다. 그보다도 첫째로 重要한 것은 病院에 入院한, 療養院에서 療養中인, 醫師진찰실에서 진료를 받는, 가정에서 간호원의 간호를 받는, 전장에서 부상하여 간호를 받는 등, 모든 경우에 처해 있는 환자와 直接 관련된 事實이 屢연히 存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看護教育은 病院 부속 看護學校를

통하여서만이 최선의 方案이 되며 國內看護員 수요를 充足시킬만한 充分한 數의 看護員을 배출하는데에는 오직 이 한 방안만이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事實이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면입니다.

記錄을 훑어보면 지난 12~15년까지 사이에 200個의 감소를 제외하고도 800에 달하는 국내종합병원에서 看護學校를 부설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61個의 看護學校가 閉校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병원관리자들은 國內 看護員 배출수의 75%가 아직도 病院부속간호학교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事實을 들어 병원부속간호학교를 강화하고 學生定員의 증원을 건의하고 정부의 재정보조를 품의하고 있습니다.

自身이 在職하고 있는 病院에 부속간호학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거의 모든 病院 행정관들은 病院 부속간호학교의 保存을 열망하고 있는데, 이는 병원 부속간호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國內 7,000餘의 各種 病院에서 病院부속간호學校가 배출한 看護員들이 취업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大多數의 醫師들과 病院 부속看護學校 出身의 많은 看護員들이 病院부속간호학교의 永存을 제창하고 永存의 必要性이 절실하다고 믿고 있는 者들

입니다.

全國 看護員數에 비해 수적으로는 微微하다 보겠으나 大學課程으로써의 看護教育을 부르짖는 주장자들은 國內의 美國看護연맹(National League for Nursing)을 비롯하여 美國看護協會(American Nurses Association) 및 看護大學들 그리고 看護教育 및 看護事業 全般의 기준을 결정하는 洲 및 연방 政府의 主要기관을 장악하여 통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部類에 屬하는 大部分의 人士들이 美國看護협회 人力配置계획서(position paper)를 企劃하고 施行할 責任을 지고 있음을 압니다. 1966年度에 美國 뉴-욕 洲 看護協會에서 출간하는 기관지 “Blue Print (청사진)”에 위에 말한 變化期가 1972년이 되도록 要請하는 記事가 실려 있습니다.

數年을 두고 各病院에서는 심한 간호원의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이 기근은 계속적으로 惡化 一路를 걸고 있습니다.

던허를 가진 자격간호원에 의해서만 안전하게 効果的으로 施行될 수 있는 간호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Practical Nurse를 그것마저도 求할 수 있을 때에 限하여, 쓰고 있는 病院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격 있는 던허간호원이나 Practical Nurse를 求하기 힘들 때에는 看護補助員을 採用하여 그들에게 맡겨져서

는 안될 심각한 看護업무를 책임지우는 病院이 많이 있는 實情입니다.

오늘날 환자 入院時間의 75%를 차지하는 초저녁시간, 밤시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시간에, 환자가 절실히 필요로 할 때, 공신력있는 質的인 간호를 모든 환자에게 베퉴수 있는 病院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入院患者 全員에 對하여 '安全한 質的看護는 고사하고 最少限의 看護도 全時間을 통하여 베퉴수 있는 病院이 극소수인 實情인데, 看護員 需要부족이 惡化一路를 달림에 따라 一般市民들은 病院 看護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事實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眞實로 모든 환자가 많은 代價를 支拂하지 않고도 좋은, 質的인 看護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公共의 福祉가 이룩된 것이며 아무도 이에 對해 反對할 사람은 없음을 압니다.

患者가 병실문을 들어서서 자신의 生命을 病院에 맡길때, 病院當局이 그들에게 量的인 또한 質的인 간호를 베퉴수 있게끔 하기에는 3가지 因子, 즉 잘 教育된 看護員이 數的으로 충분하게 있고, 사회가 감당하기에 벅 차지 않는 적절한 대가로 쉽게 얻을 수 없는한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看護員의 需要에 對한 供給이 극심하게 어려워진 데에는 지난 20餘年 동안 看護教育學者들이 看護教育을

위하여 大學과정을 施行하고자 시도한데서 기인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나는 看護教育學者들이 보급한 大學 과정으로서의 看護교육을 공정하게 설파한 줄 自負합니다.

病院부속看護學校와 Practical Nurse學校를 一切 폐쇄하도록 하고 一切의 看護교육을 全的으로 大學캠퍼스 안으로 옮기자는데, 다시 말하여 看護教育學者들의 의견에 나도 찬성할 수 있었으면 싶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결코 찬성하지도 않겠습니다.

病院은 우선, 첫째로 환자들에게 적절한 간호를 베퉴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며 病院부속看護學校와 Practical Nurse學校를 폐쇄하는 限이는 결코 不可能한 것으로 믿기 때 문입니다.

看護教育學者들의 教育우선론과 患者간호보장론은, 즉 이 두가지 目的은 絶대로 양립할 수 없으며 事實은 同時에 양립할 수 없는 正反對의 理念입니다. 病院當局은 患者의 生命과 福祉를 다루고 있는 故로 양보할 位置에 놓여 있지 않으며 그런고로 看護教育學者들이 양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看護教育學者들이 책립한 施策을 따른다면 數年 以內에 看護員需要에 對한 供給에 극심한 곤란을 招來할

것이며 結果的으로 看護員의 기근과 아울러 불충분하게 訓練된 看護員의 看護를 비싼 代價로 받게 될 것이라고 나는 이미 數年前에豫言한 바 있었고 그후 계속적으로 다른 많은 人士들로부터 같은 內容의 예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이 제시한 理由 그대로 절실하게 들어 맞았읍니다.

看護教育學者들은 病院 부속간호 학교를 파괴하고 모든 看護교육을 大學캠퍼스 안으로 옮기려는 사념에 사로잡혀 그들의 행위가 사실상 얼마만한 악을 조성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에는 눈이 어두어 있습니다. 간호교육학자들이 看護사업의 本質의 인 궁극의 目的은 患者에의 奉仕인을 기억하길 바라며 看護教育의 理念은 看護員 자신의 증대와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患者에의 최선의 最大限의 奉仕인을 再三, 재사 기억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數의 看護教育學者들은 看護員의 개인적 발전에만 치중한 나머지 社會에 對한 奉仕기능은 完全히 망각하고 있는 現實입니다. 學士課程을 거친 看護員들은 환자간호에는 관심이 없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몇달 동안 病院에 傭업한지는 모르지만 絶대로 오래 머무르지는 않으며 따라서 그들이 國內 看護員 수요를 배워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看護學碩士課程을 授業하고 있는 看護員의 ⅔는 病院부속간호학교 출신이며 學士課程역시 ⅓은 病院부속간호학교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확히 설명된 것은, 病院부속간호학교 출신들에게 학사, 석사 또는 그 이상의 고등교육과정을 담을 기회란 부여된다면 계속 病院에 머물러 있어 환자 간호에 전념할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질병과 외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환자에게 간호를 보장해야 할 책임과 기능을 담당한 하나의 病院관리자로서, 내가 가진 看護教育理念이 看護教育學者들이 제시한 그것보다 보다 넓은 意味를 가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看護教育의 單 하나의 目的은 「看護員을 배출하는 것」이라고 나는 生覺하며 다시 한번 반복하건대 다음 세가지의 社會的 要求는 반드시 貫철되어야 할 줄 믿읍니다. 즉 적절하게 잘 訓練된 看護員을 數的으로 充分하게, 社會가 감당하기에 缺치지 아니한 代가로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看護教育의 目的으로 이 세가지 以外에 또 무엇을 첨가시켜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단연코 없다—고 답하겠읍니다.

나는 결론적으로, 내가 제시한 看護教育의 目的을 성취시키고 또 大學과정의 看護教育을 통하여 성취가능

하다고 주장하는 그 사회적인 위치로 발전하기에 가능한 해결방안으로서 다음 다섯가지를 들어 피력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病院부속간호학교와 초급대학이 그들의 敎育과정을 조정하여, 그속에 임상실습을 포함시킬 것이며 美國간호연맹에서 채택한 간호학교인가 기준을 통하여 病院부속간호학교 敎科課程 내에서 임상실습을 배재하려는 사조를 지양하고 적절한 양의 임상실습기간을 다시 삽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뉴욕洲의 實情을 보면, 洲內에 散在한 3年制 病院부속 看護學校 敎科課程이 33個月이던 것을 24個月로 단축시키는 경향이 看護敎育學者들의 直接的인 압력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美國東部地方에서 現行되고 있는 2年制 純學究制 看護敎育을 철저히 감행할 것이면 그들이 국가고시에 任하기 전에 1년이 나 그 해당분의 interm課程을 거쳐서 하도록 하여야 될 줄 믿읍니다.

내 의견은 간호원들이 졸업후 직장에 진출했을 때 당면할 모든 중목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3년의 같은(초급대학후 1년의 internship과 3년제 病院부속간호학교기간) 기간을 계속 임상실제와 학리를 병행시킴으로서 敎育함이 더 効果의인듯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凡世界

的인 간호원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신졸업간호원에게 임상에 있어서 실무지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직원을 확보한 병원이 國內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社會의 共益을 위한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先代의 看護員들이 그랬듯이 졸업하는 첫날부터 한 병원에서 졸업간호원과 동등한 責任을 지고 看護할 수 있는 有能한 看護員을 배출하는 것이 看護敎育기관외의 의무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病院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큰 치더라도 어느 보건의료기관에서나 동용되는 기초적인 간호술은 습득되어야 할 줄 압니다.

둘째로, 看護敎育學者들은 看護敎育의 大學敎育化에만 優先權을 두지 말고, 病院에 入院한 모든 환자에게 24시간동안 적절한 看護를 베풀 수 있는 看護員의 수급책이 가장 우선적인 점을 인정하도록 해야 할 줄 압니다. 專門職業인 看護사업 自體로 보나 凡 社會的으로 볼 때 간호원의 수요부족이란 가장 큰 충격임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看護敎育 학자들에게, 病院 부속간호학교가 아직도 존재하고 발전되어야 하며, 國家간호원 수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많은 看護員을 배출한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역설합니다. 동시에 나는 모든 病院 관리자와 의사들을 대신하여, 만일 간호敎育학자들이

언제라도 現今까지만해도 世界에서 가장 우위에 있던 美國의 환자간호를 가능케 한 협조적인 공동사업에 합심키로 한다면, 환자애의 봉사를 들어 명서코 다시 환영합니다.

셋째로, 大學校나 大學에서는 看護學生 모집을 중단하고 그 대신 病院부속간호학교 출신을 위하여 2年の學位課程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專念할 것을 建議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모든 看護員은 3年制 病院부속간호학교를 졸업하였거나 2年制 Community College를 졸업하고 1年の internship을 거치어 졸업과 동시에 간호술에 능숙한 유능한 看護員으로써 배출될 것입니다. 그 위에 계속하여 더 工夫하고 싶은 看護員을 위하여서는 중전에 施行되던 制度 즉 시험을 거쳐 2年の學位과정에 편입하여學位를 授與하던 제도를 다시 설치하지 못할 理由는 어디에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젊은 女性 모두가 大學의學位를 받고자 하지는 않는 줄 압니다. 그러니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장학금, 대여자장학금 등의 장학제도를 확립하여 언제든지 뜻만 있으면 大學과정을 거쳐學位를 얻어 看護界의 指導的 位置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看護學校 教授진이나 보전간호원, 學校간호원등學位를 필수적 조건으로 하는 직위를 위하여서는 이 部類의 看護員에서 中당

하는 것입니다. 이런 方法으로서 점점 늘어만 가는 看護員의 各界 各層의 需要를 매꾸기 위한 大體 배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洲政府나 연방 정부는 病院부속간호학교의 예산 부족량을 위하여 보조하고 계속 운영하도록 뒷받침하여 주길 바랍니다. 이 政府보조는 學生數의 분포에 따라 直接 看護學校에 分配되고 장학금이나 기타 선명치 못한 응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看護教育의 그 理念間의 알력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키는 쉬운 일이 아니나 病院 부속 간호학교가 이를 폐쇄하려는 것은 수단에도 불구하고 존속하고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서는 마는 과거보다 훨씬 낙관적이라는 것은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1年の 教育기간을 가진 Practical Nurse學校도 계속할 것하여 유능한 Practical Nurse를 배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나아가서는 病院에서 자격간호원과 Practical Nurse의 부족으로 현재 채용하고 있는 간호보조원들을 내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공헌할 것입니다.

理念間의 分界線은 보다 명확히 둘리워졌으며 爭點로 보다 分明해졌습니다. 健康과 福祉와 나아가서는 數百萬 美國患者의 生命이라는 포식이 높이 드리워졌습니다. 그 위에

건강을 위한 專門職業人들 모두의 주어진 것입니다.
어께에는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이

방청객의 질의 및 토론

질문 : Hale박사님, 만일 看護教育이 大學教育으로 올라가고 大學과정과 初級大學을 통하여 看護졸업생이 배출된다면 병원부속간호학교를 통하여 現在 배출되는 看護員數만큼 배출될 것 같습니까.

응답 : “단일”이란 단어 때문에 참 말 답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언제나 大學看護教育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충분한 數의 看護員 배출을 하지 못한다고 느껴왔습니다. 최초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되어 온 긴 경험을 통하여 내린 예언적인 판단으로도 그것은 결코 불가능할 압니다. 잠간동안 大學看護교육과정을 통하여 수적인 배출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이나 제가 확신한다 칩시다. 그래도 한가지 문제는 남아 있지요. 즉 大學看護교육을 통한 看護學士들이 病院에 취업하여 오래 체재하지를 않는 율이 높은 사실 때문에 病院에서 환자 간호를 담당할 간호원의 수요가 充分히 충원된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면허획득이나 자격획득의 목적으로 몇달동안 병원에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결혼의 목

적으로 학교를 중단하거나 졸업후에도 看護學校 교수진이나 보건간호원으로 吸收되어 버리기 때문이지요. 나는 大學看護교육을 反對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히 말하건대 看護員의 수요를 充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 學生들이 3年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4年제에 다시 등록하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관한 한 3年제와 4年제의 相反된 차이점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요. 4年제 간호학과정에 가지 않아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무엇이 틀리지요, 임상간호가 필요로 되고 있다는 것 뿐이겠지요. 대단질 몇개의 간호학교를 찾아 보셨습니까.

응답 : 하나도 안가 보았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읍니다. 나는 看護學校보다 大學에 더 많은 관련을 가져 왔읍니다.

질문 : Hale박사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醫師나 學校교사들과 같은 專門職業人이 모자라는 것과 같이 간호원에 대하여서도 극심한 기근과 수급대책이 곤란한 것을 거듭 들어왔고 어찌면 해결

하는 방법이 영영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병원행정관들 즉 당신을 포함한 大部分의 행정관들이 간호원의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간호원들을 환자간호에 전념하도록 해 주었는가 즉 세탁물을 나르고, 약을 타오고, 환자를 나르고, 기타 잔심부름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응답: 정말 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그 대책을 좀 세운바 있습니다만... 이 나라 안에서 어디에 가든지 병원에서 간호원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는 現場을 목격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간호원의 기근을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하게 당면해 왔던 것으로 간호원 이외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업무는 거의 간호원으로부터 제외되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두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병원에서 非看護업무중에서도 看護員 以外の 사람에 의하여서는 불안정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개 간호원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지요. 항간에 병실관리자라든가 병실 "Captain"이라는 말이 있지요. 현재 간호원이 아닌 사람을 병실이나 병동의 관리자로서 두어 성공적으로 효과를 거둔 병원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관리자로서 간호원의 판단이 필요 불가결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성공적이

못된 것이겠지요. 또한가장 경우는 예를들어 야간에 약방에 내려가 약을 가져오는 일 말입니다. 분명히 간호업무가 아니며 高位層에 속하는 看護員으로부터 그것은 간호업무가 아니므로 그런 일은 시켜서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옵니까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약제가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첫째로, 낮에 근무할 약제사도 없는 형편에 둘째로, 온 밤을 통하여 3번 가량의 처방된 약을 짓기 위하여 밤에 근무시킬 수 없으며, 셋째로 그에 對한 보수도 문제라고 답하겠습니다.

질문: Dustan 學長님께서 看護教育의 大學化를 부르짖는 理由로써, 看護員들이 看護술의 方法과 同時に 밑받침하는 理論을 배워야 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3년제 간호학교를 통하여서 이 점을 大學과정을 통하여서보다 못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病院부속간호학교를 통하여서도 理論을 잘 배울 수 있고 잘 가르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人間을 生理的, 心理的, 社會的인 여러 면으로 널리 理解함이 要求되는 現在에 있어서는 病院부속간호학교에서 시행하는 짧은 理論教育기간(theory course)을 통하여서는 時間이 불충분하여 깊이있는 교육이 힘들 것으로 生覺됩니다. 그러니까 가르

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大學에서 教授되는 수준에서 배워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病院부속간호학교에서 많은 양을 높은 수준에서 가르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질문 : 事實上 간호원들의 모임에 몇몇 병원행정자를 포함시켜 이자리에 초청하여 주신 깊은 배려에 대해 우선 병원관리자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大多數의 病院관리자나 一般市民이나 마찬가지로 教育自體(看護教育)를 넓은 경지로 옮기는데에는 후호의 의의도 없이 共感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病院부속간호학교를 폐지하기로 결단을 내리시느냐, 그 말이지요. 지난 3년동안 25個 看護大學課程이 신설되는 反面에 60個의 病院부속간호학교가 閉校되었읍니다. 우리가 접내는 것은 극심한 간호원의 기근입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우리 환자를 돌볼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문제입니다. 이런 등기간의 보복대신에 “좋은 優秀한 病院부속간호학교는 장려한다”고 美國看護團體가 施策을 바꿀 수는 없겠는지요.

응답 : 우리를 간호교육학자라 명명하던지 간호권력층이라 하던지, 간호지도층이라 하던지간에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문제를 같이 當面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단드는 것입니다. 病院協會에서는 “우수한 病院부속간호학교도 필요하며 이

필요성은 영구적인 것이다”라는 要請의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더러 동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협회團體가 발표한 성명에 부족한 점, 즉 빠뜨려서는 안될 重要な 事實이 빠졌더군요. 社會가 계획하고 바라는 서서한 변천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말입니다. 내가 맹목적으로 病院부속간호학교를 「비관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나도 病院부속간호학교가 설립된 理由를 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大多數의 看護員을 배출하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열거한 理由로 因하여 변천이 와야할 것은 明明白白한 事實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같이 의논하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大學校內에 좋은 우수한 看護教育課程을 설립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우수한 2年制 初級大學課程을 設立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이라는 자료를 양보한다면 능히 大學校나 初級大學課程에 초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時間이 걸리며 “제도를 변천시키기 전에 확고한 기반을 확보하자”고 하는 여러분의 태도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간호원 수급을 위해서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먼 眼目으로 안달을 위하여 같이 계획하는 것입니다.

같이 계획하자는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이며 또한 내가 바라는 그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있는 바로 그 이유이구요. 여러분들은 이당면 「현상」이 美國看護연맹과 美國看護協會(해결책 5호와 人力配置계획

서)(resolution No. 5, position paper) 때문에 기인되었다고 책망하지만 나는 이 두 성명이 환상적이라거나 혁명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事實自體의 명확한 기록이라고 확신합니다. <Nursing Outlook Sep. '67에서>

새해에 바라는것



이 귀 향

새해에 바란다.

每年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기대와 포부를 가져봅니다.

더욱이 政府 政策上으로 不足한 看護員을 補充하기 위하여 看護學生 増員 및 看護學校 新設, 看護補助員의 養成이 추진되는 한편 質的 看護의 위협 등 問題點을 갖게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各會員은 自身의 위치에서 Professional Nurse로서의 義務와 權利를 철저하게 認識하고 그

機能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보건 요원의 team work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갖고 研究해야겠습니다.

또한 急増하는 看護員의 海外進出은 個人의 發展과 國家人力 수출에 기여하는 바 많으나 看護員 증진급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國民保健 수호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各者 會員들은 내나라 國民保健, 教育에 이바지할 도량을 베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會員 서로서로 和睦하고 團結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위하여 教育과 行政이 함께 발맞추어 보다 훌륭한 韓國의 看護事業을 이룩하는데 우리 모두 힘써 일하기 바랍니다.

<서울의대간호학과장>